

공립유치원 교육 기반 강화 토론회 개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지난 21일 광주창의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공립유치원의 교육 기반 강화 미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개선점을 찾고,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하였다. 전남대 권귀영 교수의 주제 발제 '공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유치원 교육방향'을 필두로 이루어진 토론회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 교원, 방과후 과정 담당자,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 공립유치원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며, 객석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동체 의견 공유

“현장 중심 정책 추진 위해 노력 할 것”

과 함께 묻고·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 축소 필요 △유아·놀이 중심 교육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유치원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 △단설유치원·3학년 이상 병설유치원 운영 확대 등의 다양한 개선 사항이 제시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립유치원의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됨으로써 향후 유치원과 교육청 간의 정책적 간격을 좁힐 수 있는 현장작업안산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시교육청 양정기 교육국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광주 공립유치원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적극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이 중심 되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조상 임대표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들이 광주 공립유치원 교육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광주 유아교육 현상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내 아이 진로·직업 우리도 체험해요”

구례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에서 내고장학교보내기 학부모 연수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윤덕)은 지난 20일 구례 관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부모 60여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에서 내고장학교보내기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날 연수 1부 '자유학기제에서의 내고장학교보내기 학부모 연수' 강사로 나선 진로·진학 분야 전문가인 여수교육지원청 강태창 장학사는 최근 변화하는 진로·진학 전략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개하면서, 자유학기제에서 내고장학교보내기의 장점을 학교 현장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2부 미래의 직업체계에 대해서는 프리리터 김슬기 강사가 화제장식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다양한 직업들을 실습을 통해 소개하여 학부모에게 직업과 연계되는 직업에 대한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였다. 연수에 참석한 구례여자중학교

3학년 이모 학부모는 '자녀의 진로·진학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시골이라서 접하는 정보가 한계가 있고, 자녀를 외부로 보내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해야 되어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내 고장에서 학교를 보내어도 아이들이 원하는 진로·진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체제도 하게 되어 너무나 유익한 연수였다.' 고 말했다.

구례교육지원청 임윤덕 교육장은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학부모들의 미래 직업 체험을 통해 진로·진학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여 내고장학교 보내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친구·선생님과 게임 한판 어때요?”

2019 광주 장애학생 정보경진 및 e스포츠대회 개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지난 21일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사랑관에서 2019 광주 장애학생 정보경진 및 e스포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장애학생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건전한 여가생활 개발을 통해 현재 및 미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장애학생과 함께하는 경기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최하였다. 정보경진대회 부문은 아래한글(ITQ), 파워포인트(ITQ), 엑셀(ITQ), 로보코딩 4개 종목에 11명의 학생이 실력을 겨루고 e스

포츠대회 부문은 카네트 스포츠육상,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PC), 미구마구(PC), 모두의 마블(모바일), 클래시로얄(모바일), 펜타스틀(모바일) 6개 종목에 41명이 비장애학생 또는 교사와 함께 팀을 이뤄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뽐내었다.

특히 올해 신설된 특수학교 고등학교생이 참여한 '로보코딩'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코딩로봇에 절차를 입력해 과제를 수행하는 종목으로 장애학생의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별도의 체험부스도 운영하여 장애학생들의 IT 능



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종목별 입상한 학생들은 9월 3일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최하는 2019 전국 장애학생 페스티벌에 광주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유아특수교육과 김수강 과장은 “광주시교육청의 특수교육은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실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장애학생의 정보화능력 신장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통해 장애학생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핵심역량을 기르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무안 돌봄교실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철)은 지난 21일 초등돌봄전담사 29명을 대상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초등돌봄교실'을 주제로 안전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초등돌봄 운영시 학생들에게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목표 한국병원 응급의학과 김동진, 박배정 응급구조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골든타임의 중요성과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심폐소생술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였고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초등돌봄교실'이라는 주



제로 남악초등학교 교감 김란 강사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정재철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기대하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자녀를 맡기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돌봄전담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근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안=이기성 기자

전남 학교장들, 민주적 리더십 ‘술선수범’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역점과제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열기가 뜨거워 가운데, 일선 학교장들의 탈권위적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강진고등학교, 도교육청 혁신교육과와 전문적학습공동체인 교육혁신아카데미(회장 임원택)가 공동 주최한 '2019. 민주시

민교육 리더십 특강' 행사에서 학교

장들이 직접 주차안내요원으로 직접 나서서 등 술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강진 칠량중 김현국 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전남교육혁신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회원들은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행사장에 도착했다. 이들은 일손이 비쁜 도교육청 직원들을 대신해 강진의료원 입구에서부터 행사장까지 안내 꽃

전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리더십' 특강 성황

도 단위 행사 주차도우미·강당 뒷정리 등 참여 눈길

말을 듣고 주차 도우미로 나서는가 하면, 일부는 등록 도우미와 행사장 뒷정리까지 해주는 등 200여 참석자들의 편의를 도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기획에서부터 강사 및 장소 섭외, 프로그램 진행, 뒷정리까지 혁신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과 아카데미 회원들이 역할을 나눴다. 행사 예산

일부도 양측이 분담하는 등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도교육청 간의 혁신적 협업모델로 평가받는다.

한편,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장의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정광필(전 이우학교 교장) 강사를 초청해 특강과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정환 기자